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 관련 질의내용 사전 제출

2. 교수 대상 대학전체 대상 정책토론회

- 최근 여러 대학에서 미래지향적 교육개혁과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과) 통폐합이나 첨단학과 신설,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는 학부(과)별 교수 및 학생 정원의 조정과 모집단위 변경 등 대학의 구조와 학사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우리대학의 총장후보자로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와 그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시도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학과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변]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로봇이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초연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생산성이 높은 인재보다는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적 감성을 바탕으로 다전공지식을 겸비한 창의적 융합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아직도 40-50년전 산업화시대의 인재양성 시스템에 머물러있습니다.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제도와 학사조직들을 개혁하고 새로운 교육방법 도구들은 도입하는 등의 변화와 개혁은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대학 교육시장 환경 아래에서, 만일 우리대학이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한다면 급속히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